마 중 여 행 사 문의:02-730-2270
시베리아횡단열차 타고 바이칼호수로 겨울여행 8일
2019년 2/12, 2/19 출발

비즈 프리즘 | '1인 가구'의 성지 된 편의점

"저녁부터 혼술까지"…'1코노미' 트렌드 주도

〈1인가구+이코노미〉

편의점 도시락, 저녁 식탁도 점령
과메기 등 제철상품도 소포장 대세
혼술 트렌드 겨냥 1인 술안주 인기



▲미니스톱 '미니포차 1인삼겹'(왼쪽)과 세븐일레븐 1인용 소포장 술안주 '김치전'


CU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는 고객. 편의점 업계가 1코노미를 겨냥한 제품 출시에 한창이다. 사진제공 | CU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편의점들이 '1코노미'(1인가구+이코노미) 트렌드에 맞춘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1인 가구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즐기는 만큼 인원 대비 통 큰 소비가 특징이다. 그동안 점심 때 인기 높은 것으로 여겨지던 편의점 도시락은 이제 1인가구의 저녁 식탁을 점령했다. CU가 최근 5년 간 시간대별 도시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저녁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저녁시간대(18시~21시) 도시락 매출이 하루 도시락 매출의 22.1%나 차지했다. 가장 많이 팔린다는 점심시간대(12~15시) 매출(22.2%)과의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점심식사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찾았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하고 푸짐한 도시락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저녁용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한 혼자서 먹기 적당한 소용량을 선호하면서 각종 농수산물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나오고 있다. GS25가 내놓은 '한 끼 과메기'의 경우, 요즘 제철인 과메기를 1~2인이 먹기 좋게 5마리를 손질해 초고추장과 동봉했다. 한 번쯤 맛보고 싶지만 1인 가구 입장에서 양과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것에 착안했다.

1인 가구와 맞물린 새로운 트렌드인 혼술(혼자 마시는 술)에 맞춘 상품도 등장했다. 미니스톱은 1인 가구 안주 상품 '미니포차 1인삼겹'을, 세븐일레븐은 1인용 소포장 술안주 '김치전'을 선보였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편의점에서 근거리 쇼핑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다루지 않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고 고객의 예상을 뛰어 넘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어학연수·홍삼판매' 불법 다단계 상조사 적발

대표이사 등 15명 형사입건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영업 등 편법 사업을 하거나 재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영업하던 서울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을 비롯해 선수금 미보전한 업체 4곳,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지점장-소장-설계사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1106억 여원 상당의 장례,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홍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역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600억원 상당의 장례, 결합상품,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미리 수령한 금액 중 50%를 보존해야하지만 4개 업체는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C업체는 1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576건 6억4000여만원 해약환급금을 법정 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이통사 '5G 대전' 본격화…내달 1일 첫 송출

이통사의 5G 전초전이 시작된다.

장비공급사 선정을 마무리한 이동통신 3사는 망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월1일 첫 전파 송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라우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먼저 내놓는다.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가장 먼저 장비공급사를 선정한 SK텔레콤은 10월 상용화 최종 단계인 '퍼스트콜'에 성공했다. 또 11월 14일에는 언론에 서울 중구 명동 상용망 구축 현장(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광특구 명동과 ICT체험 랜드마크 을지로 본사 '티움', 종로 '스마트 오피스'를 연결하는 '5G 1번지'를 구축한다는 밑그림이다.

KT는 이달 8일 5G 장비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들 업체와 협업해 완벽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T는 5G사업본부를 전체 무선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5G플랫폼개발단을 신설하는 등 5G 중심의 2019년 정기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했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중국업체 화웨이를 장비공급사 중 하나로 선정한 LG유플러스도 5G 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8일에는 하현회 부회장이 직접 5G 기지국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하 부회장은 여기서 5G에서도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2~16일

코스피지수	2092.40	▲	+6.31
코스닥지수	690.18	▲	+2.89
日 닛케이 지수	2만1680.34	▼	-569.91
中 상하이 종합	2679.11	▲	+80.2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5	▼	-0.01
환율 (원 · 달러)	1132.00	▲	+3.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204.68	▼	-131.02

지수는 16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삼성SDS '스타크래프트' AI 대회 우승

삼성SDS 개발자로 이루어진 사이다(SAID A)팀이 캐나다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AI) 대회에서 우승했다. AIIDE(Artificial Intelligence & Interactive Digital Entertainment) 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AI봇끼리 3주 간의 리그전을 통해 최고 승률을 올린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사이다팀은 10월 말부터 10개의 맵에서 진행한 대전에서 2484승 106패, 96%의 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미국 페이스북과 스탠포드대학, 중국의 빌리빌리 등 세계에서 27개 팀이 참가했다.

LG전자 가전제품 '케어솔루션' 실시

LG전자는 새 가전제품 관리서비스 '케어솔루션'을 17일 시작했다. 핵심부품을 정기 교체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위생 관리와 함께 제품이 최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관리 담당하는 서비스다. 기존 렌탈서비스와 유지관리 케어십은 케어솔루션으로 통합된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정수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7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대기업·공기업 대비 교재 추천

하반기 취업시장 "AI 등 블라인드 채용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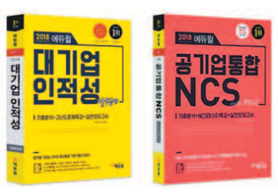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 시장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취준생 중에는 내년도 취업 시장을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취업시장은 어땠을까.

주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채용 트렌드를 살펴보면 올해에도 단연 블라인드 채용이 눈에 띄었다. 작년에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확대가 이슈가 됐던 가운데 올해는 비슷한 양상으로 'AI 채용'이 강세를 보였다.

롯데 그룹은 이미 상반기 AI 서류 검증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CJ그룹 및 기아자동차가 도입을 밝힌 것. 국민은행의 경우 'AI 면접관'을 도입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인공 채용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강화한 것.

서류전형에서의 블라인드 채용 열풍이 거셀수록 필기시험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9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직무와 산업



국을 설정해야 한다. 공기업·일반기업·외국계·금융권 등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직무 연관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직 어떤 기업에 응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대기업 인적성 기출 통합편', '공기업 NCS 통합편' 등 전반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에듀윌의 '공기업 NCS 통합' 교재의 경우 대표 공기업의 필기시험 분석부터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분석, 실전 모의고사 등 NCS 필기시험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대기업 인적성 통합' 교재도 주요 대기업 공채의 기출 정보가 수록됐다.

이수진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1		3		5		7		9
			9		3			
9		6		2		1		5
	3						1	
4		5				9		2
	9						5	
3		2		8		4		1
			1		2			
8		9		6		5		7

1					6			9
		6	9		8	4		
	4		1				6	
	7	2		9			5	8
			8		3			
6	8			1		9	7	
	9				5		2	
		5	3		1	8		
8			2					4

■ 스도쿠정답

8	1	9	3	6	4	5	2	7
5	6	4	1	7	2	3	9	8
3	7	2	5	8	9	4	6	1
2	9	1	7	4	8	6	5	3
4	8	5	6	3	1	9	7	2
6	3	7	2	9	5	8	1	4
9	4	6	8	2	7	1	3	5
7	5	8	9	1	3	2	4	6
1	2	3	4	5	6	7	8	9

8	3	4	9	6	2	7	5	1
2	6	5	3	4	1	8	9	7
4	9	1	5	8	7	3	2	6
6	8	9	4	5	1	2	7	3
5	1	7	8	9	6	3	4	2
3	7	2	6	9	4	1	5	8
9	4	8	1	3	7	2	6	5
7	5	6	9	2	8	4	3	1
1	2	3	4	5	6	7	8	9